

## 결텍스트를 통해 본 영화번역가 황석희와 영상번역 생태계

김 순 미  
(숙명여대)

### 1. 서론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으로나 연구 영역에서나 비가시적 존재였던 영상 번역가의 일상과 번역 과정, 주변과의 상호작용을 번역가를 둘러싼 결텍스트(paratext)<sup>1)</sup>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사회학적 연구이다. 영상번역계는 피라미드 구조로 다양한 플랫폼을 중심으로 무수한 무명의 번역가들이나 자원봉사자들, 팬 번역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한편 그 대척점에는 영상번역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개봉 영화번역가들이 있다. 번역가의 위상이 높고, 의식이 있으며, 활동도 활발해야 본인과 주변에서 관련 결텍스트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데(김순미 2014; 임진 2023; 유한내 2013; 전현주 2009), 영상번역계에서는 개봉 영화 번역가들이 가장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 관련 결텍스트가 생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봉영화 번역가 중에서도 최근 가

1) “결텍스트성(paratextuality)은 주네트(Genette)가 제안한 개념으로 전통적으로 작품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문학 작품을 둘러싼 모든 것을 서술하기 위한 개념이다”(윤미선 2020a: 161). “결텍스트 중 번역문과 한 책으로 묶여서 구성된 결텍스트는 ‘주변텍스트(peritext)’, 번역문과 한 책으로 구성되지 않고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진, 즉 번역서 밖에 존재하는 결텍스트를 ‘바깥텍스트(epitext)’라고 한다”(박선희 2015: 15).

장 언론의 조명을 받는 황석희 번역가 관련 결핵스트에 집중한다. 이를 통해 번역가 개인뿐 아니라 영상번역계의 중요 주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대중문화 번역계가 어떻게 움직이고 발전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황석희 번역가는 영상번역가들의 ‘직업적 정점’이자 ‘메이저리그 진출’이라고 할 수 있는 개봉 영화번역가 중 한 명이다. 그는 <데드풀>, <스파이더맨>, <킹스맨>, <엑스맨> 등 메가 히트작 시리즈를 비롯한 각종 영화에서 소위 말하는 ‘초월번역’<sup>2)</sup>을 통해 관객 지명도를 얻었다(이해림 2022. 8. 5.). 원작의 개성과 한국어 말맛을 동시에 살리는 번역으로 마니아들에게 ‘밀고 보는’ 번역가로 통하며(김호이 2022a. 10. 1.; 허윤희 2022. 7. 23.) 슈퍼 영웅물 <데드풀> 번역으로 “번역가 상 줘야 한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이태훈 2020. 9. 16.; 허윤희 2022. 7. 23.).

황석희는 번역가의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정의되는 “번역가의 비가시성(translator’s invisibility)”<sup>3)</sup>(Venuti 1995)을 넘어선 인물이다. 임진(2023)에 따르면 기자, 편집자, 비평가, 독자 등 외부인이 바깥텍스트를 통해 번역가 또는 번역에 대해 언급하거나 기술한 내용은 그 자체로 해당 번역가의 가시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데(127), 황석희의 경우는 인물 소개, 인터뷰, 개인 소셜미디어 분석, 번역한 영화 홍보나 각종 행사 참석 등을 담은 관련 영상과 기사가 넘쳐난다. 그동안 번역가와 관련된 바깥텍스트의 부족으로 이 분야 연구가 힘들었던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높은 인지도로 다양한 관련 텍스트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그는 좋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황석희는 소셜미디어 활동 포함 관객과의 직간접적 소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남긴 온라인 텍스트와 활동 기록이 많다. “불가시성(invisibility)<sup>3)</sup>은 번역작에 대한 역자의 책임감 및 윤리의식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품질 좋은 번역작 생산의 전제조건에 역자의 가시성을 반드시 포괄”(전현주 2009: 213)해야 한다는 면에서 관객과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황석희 번역가는 좋은 연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황석희 번역가는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 카툰, 뮤직비디오,

2) “외국어 원문의 뜻을 훼손하지 않고 현지 문화권의 느낌이 살아나도록 의역한 경우를 칭찬하는 표현”(김경훈 n.d.)

3) 본고의 다른 부분에서는 “번역가의 비가시성”(Venuti 1995)을 썼으나 이 부분에서는 전현주 연구자가 쓴 용어인 “불가시성”을 그대로 사용한다.

연극 등 각종 장르의 번역을 하고 있고 영화와 연극 대사 각색에도 참여하는 등 문화콘텐츠 장르와 활동을 넘나들며 작업을 하고 있어 한 명의 번역가를 통해 영상번역뿐 아니라 대중문화 번역계 전체를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온라인 검색을 통해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보도 기사와 인터뷰 기사 등 바깥텍스트를 검색한 후 다음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영화번역가를 둘러싼 바깥텍스트는 어떤 내용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둘째, 영화번역가와 그를 둘러싼 생태계는 어떤 모습이며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

## 2. 선행연구 분석

### 2.1 번역가 연구

통번역학의 패러다임이 “사회학적 전환”(sociological turn)을 하면서 통번역학 연구의 관심이 텍스트를 넘어서 텍스트를 생산하는 번역가와 통역가의 주체성(agency)과 통번역 행위에 담긴 사회적 요소로 확대되고 있다(Angelelli 2014: 1). 번역가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확장되는 가운데 체스터만(Chesterman)은 번역학 내의 새로운 하위 연구 분야로서 “번역가 연구”(TranslaTor Studies)(2009: 13)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번역사회학을 번역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on), 번역가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ors), 번역 프로세스의 사회학(sociology of translating) 등 세 가지로 구분했는데, 이 중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된 ‘번역가의 사회학’과 ‘번역 프로세스의 사회학’ 관련하여 체스터만은 다음과 같은 주제를 제시하였다.

번역가의 사회학: 문화별로 다른 여러 장르 번역가의 지위, 급여, 업무 조건, 역할 모델, 아비투스, 전문 번역기관, 인증 시스템, 번역가의 네트워크, 저작권, 성적 취향/성별/권력관계가 번역가의 업무와 태도에 미치는 영향, 언론에서나 문학 작품의 주인공으로서 통번역사를 통해 드러나는 이 직업에 대한 공적 이미지를 포함하여 번역 관련 공적 담화, 수필/인터뷰/역자 후기 등을 통해 드러나는 번역가의 직업관과 태도, 이데올로기와 윤리 의

식, 더 나아가 자원봉사자나 사회운동가로서의 번역사, 번역 동기와 특정 작품 선정 이유 등 (16-17)

번역 프로세스의 사회학: 번역의 각 단계, 번역 업무 진행 과정, 품질 관리와 보수(revision) 과정, 팀 번역 시 협력 관계, 다단계(multi-drafting) 번역, 클라이언트를 포함 다양한 주체들과의 관계, 번역 규범과 정책, 기술 사용 등 (17)

위 주제들은 다음에 나올 선행연구의 주제들과 함께 범주화 과정을 거친 후 황석희 번역가 관련 결텍스트 분석의 기준으로 삼으려 한다.

## 2.2 결텍스트 연구

### 2.2.1 출판번역과 영상번역의 결텍스트 선행연구

통번역이라는 행위의 주체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많이 행해진 텍스트 분석과 다른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이 사용된다. 그중 하나가 번역 결과물 내부나 외부에 존재하는 번역 및 번역가와 관련된 영상이나 문자 텍스트, 즉 결텍스트를 분석하여 비가시적 존재인 통번역사의 실체를 밝혀내는 것이다.

국내에서 결텍스트를 중심으로 번역가를 연구한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 출판번역, 특히 문학번역, 그중에서도 독자들이 번역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인 역자 후기를 중심으로 행해졌다(김순미 2013, 2014; 김영신 2012; 전현주 2009; 지영래와 박선희 2010). 연구 결과에 따르면 후기에 원문에 대한 해설을 넘어 본인 번역 과정이나 전략, 작업 환경 등에 관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번역가는 많지 않으며 그 태도 또한 조심스러웠다(김순미 2014; 마승혜와 김순영 2021; 전현주 2009). 소수이긴 하지만 후기를 넘어 번역가의 기고문, 강연, 방송 출연, 기사, 독자 서평, 인터뷰 등 바깥텍스트를 연구(김순미 2013; 유한내 2014; 임진 2023)한 경우도 있다. 특히 임진(2023)은 그동안 집중되었던 문학번역 중심 연구에서 벗어나 경제경영서 관련 번역가들을 연구한 점이나 방대한 바깥텍스트와 인터뷰 등을 대상으로 번역가를 중심으로 하는 출판서적 장(field)<sup>4)</sup>을 분석했다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

4) 부르디외(Bourdieu)의 ‘장 이론’은 고유의 이해관계를 가진 가상공간인 장에서 다양

그렇다면 영상번역가의 지위를 보여줄 수 있는 영상계의 결텍스트 현황은 어떠한가? 출판번역계는 번역가를 인정하여 이름과 약력을 번역서에 올리지만 영상번역 경우는 번역가의 이름을 엔드 크레딧에 올리는 것조차 필수가 아니다. 나아가 ‘실명제’는 번역가의 노고를 인정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 관객들의 오역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만 높이는 것으로 인식되어 엔드 크레딧에 가명을 쓰거나 아예 실명을 넣지 않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sup>5)</sup>(김지혜 2018. 5. 10.). 본인이나 외부인들이 작성한 다양한 결텍스트를 통해 표출되는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정도가 번역 및 번역사의 사회적 위치, 해당 문화가 번역 및 번역사에 대해 가지는 태도 등을 반영한다는 점”(유한내 2013: 102-103)을 볼 때 영상번역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위치는 출판번역계보다 더 못하다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결텍스트를 활용한 영상번역 연구는 최수연(2015)와 윤미선(2022a, 2022b) 정도이다. 이중 최수연(2015)은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을 활용하여 영상번역가 중심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였다. 방법론적으로는 번역 결과물뿐 아니라 함혜숙, 황석희<sup>6)</sup> 등 영상번역가들의 개인 블로그와 공식사이트, 각종 기사, 문헌, 웹사이트 등 다양한 결텍스트를 활용하여 클라이언트, 연출가, 시청자, 쌍방향 의사소통 기술 등 영상번역 행위자들 간의 다양하고 복잡한 관계를 분석했다. 이를 통해, 영상번역 결과물은 단지 번역가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관계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최수연(2015)이 영상·번역가를 둘러싼 생태계에 집중했다면 윤미선(2022a, 2022b)은 영상·번역물의 결텍스트에 중점을 두고, 더빙이나 자막 번역물이 목표 문화권에 수용될 때 번역물에 가해지는 수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즉, 영화에 크레딧이나 샷이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등 현상을 단순 로컬라이제이션

---

한 주체가 장 내에서 거래되는 고유의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 경합을 벌이는 과정을 통해 사회를 이루는 주체와 사회구조 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아비투스(habitus)인데, 이는 한 개인이 삶의 전반에 걸쳐 축적한 기질(disposition)과 경향이다(임진 2023: 6).

5) 번역업계 관계자는 “번역가의 크레딧을 넣는 것은 개인의 자유다. 그러나 특정 영화 사에서는 최근 들어 번역가 이름을 크레딧에 안 넣는 추세를 보인다. 아무래도 관객들이 번역에 예민해하고,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논란이 커질 소지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김지혜 2018. 5. 10.).

6) 2023년 7월 현재 두 번역가의 블로그와 공식사이트는 비공개로 전환된 상황이다.

(localization)의 문제가 아니라 결텍스트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목표 문화권의 번역 과정이나 수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하고 있다. 해외에서도 영상번역 관련 결텍스트 연구는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최근 들어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뿐 아니라 게임과 같은 멀티미디어 분야에서도 결텍스트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Bachelor 2018, 2021; Consalvo 2017; Gray 2010, 2015; Klecker 2015; Matamala 2011; O’Sullivan 2018; Skare 2021; Stanitzek 2005). 그러나 이들 연구는 대부분 윤미선(2022a, 2022b)과 같이 ‘번역가’보다는 ‘번역물’에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결텍스트에 집중한다는 특징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결텍스트를 활용한 영상번역가 연구는 최수연(2015) 정도이다.

### 2.2.2 출판번역과 영상번역의 결텍스트의 구분

결텍스트, 특히 바깥텍스트(epitext)를 통한 번역가 연구는 쉽지 않은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번역 관련 바깥텍스트의 경우 연구자료의 정의도 잘 되어 있지 않고 수집이 쉽지 않다는 점에 있었다(박선희 2015). 다행히 최근 들어 번역가와 관련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뷰, 강의, 칼럼 등 다양한 형태의 바깥텍스트는 증가 추세에 있고”(유한내 2013: 114), 번역의 결텍스트 개념 정립 노력(박선희 2015)도 있었다. 번역문의 결텍스트 성격은 원문의 결텍스트와 다르다고 하면서 이를 재구분한 연구에 의하면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는 다음과 같다.

〈표 1〉 번역문의 주변텍스트(박선희 2015: 25)

기능별	주변텍스트 종류
저자 관련	저자명, 제목, 부제, 헌사, 주석, 저자 서문 등
편집자 관련	판형, 등장인물 소개, 삽화, 사진, 표지/속표지 디자인, 표지/속표지 문구, 편집자 서문, 편집위원 명단, 시리즈명, 일러두기 등
번역자 관련	번역자명, 작품해설, 작가 연보, 번역자 헌사, 역주, 역자 서문(후기), 번역자 약력 등
제삼자 관련	추천 서문, 추천 문구, 작품해설 등

번역가 실명과 약력, 역자 후기나 서문, 작품해설 등 종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위의 주변텍스트 구분은 철저히 문학번역을 중심으로 한 주네트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박선희(2015)에서 구분한 번역문의 바깥텍스트의 종류는 다음

<표 2>와 같다. 지금까지 번역서의 결텍스트에 대해 구체적인 범주화와 정의가 없던 현실에서 이같이 정의를 내리고 구분한 시도는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발전하는 온라인 시스템상에서 제작되는 디지털, 소셜미디어 콘텐츠 등은 텍스트 종류에 포함하고 있지 않아 장르와 시대적 한계가 있다.

<표 2> 번역문의 바깥텍스트(박선희 2015: 27)

바깥텍스트의 종류	텍스트 종류
공적 바깥텍스트	신문/잡지 기사, TV/라디오/발표회/심포지엄 인터뷰 또는 대담, 토론, 학회 발표집, 안내서, 계시문, 단행본 또는 단행본의 일부, 학술 논문, 서평, 독후감 등
사적 바깥텍스트	편지, 일기, 사적 대화, 번역 노트 등

이에 대해 윤미선(2020a, 2020b)은 결텍스트는 주네트가 처음 이 개념을 도입했을 때부터 문학을 중심으로 했으며, 영상번역의 결텍스트는 전통적 결텍스트와 다르다고 강조하였다. 영상번역 중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구성된 더빙의 주변텍스트(윤미선 2020a: 164-166, Matamala 2011에서 재인용)와 바깥텍스트(윤미선 2020a: 166, Gray 2008: 37에서 재인용)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더빙번역문의 결텍스트

결텍스트	텍스트 종류
주변텍스트	오프닝 크레딧(opening credits)
	엔드 크레딧(end credits)
	포스트 크레딧 시퀀스와 티저(post-credit sequences and teasers)
	DVD 부록(DVD [bonus materials and special features])
바깥텍스트	대본(scripts)
	영화 포스터, 옥외 광고, 신문이나 잡지의 광고, 트레일러, 홍보 영상, 홍보 웹사이트, 기자 회견, DVD 커버(앞/뒤), 패스트푸드 체인점의 장난감 프로모션, 영화 캐릭터가 그려진 옷이나 장난감 판매 등 해당 영화와 관련된 모든 홍보, 관객 리뷰

위의 분류는 영상번역 결텍스트가 출판번역과는 크게 차이를 보여준다. 즉, 위의 목록은 영상 관련 홍보, 광고, 홍보 텍스트와 상품 등을 다수 포함하고 있으며 목적이 철저히 ‘상업적 홍보’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이들 바깥텍스트는

‘번역가’가 아니라 ‘번역문’이 어떤 수정과 변화를 거치는지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2.2.1항에서 보았듯 대부분의 영상번역 결텍스트 연구는 번역가가 아니라 번역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점에서 영상번역가의 결텍스트를 분석하는 본 연구는 다른 연구와 차별된다 할 수 있다.

### 2.2.3 결텍스트 분석의 틀

이제 본 연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번역가에 대한 결텍스트를 분석하는 틀을 구성해 보겠다.

첫 번째 포함한 항목은 체스터만(Chesterman 2009)이 제시한 ‘번역가의 사회학’과 ‘번역 과정의 사회학’의 중요 주제들로, 번역가의 지위, 급여, 업무 조건, 역할 모델, 아비투스, 성별이 번역 업무에 미치는 영향, 저작권, 규범, 네트워크, 공적 이미지, 직업관, 윤리 의식, 번역 과정, 품질 관리, 기계 사용 등이다.

두 번째는 김영신(2012), 김순미(2014), 마승혜와 김순영(2021), 유한내(2013) 등 결텍스트 중심 ‘번역가’ 연구 주제들로 이를 <표 4>에 정리해 보았다. 모든 연구에서 공통으로 번역가의 작업 과정, 정체성, 경제/사회적 지위, 인적 네트워크 등이 중요한 분석기준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세 번째로는 세 명의 출판번역가의 아비투스를 중심으로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를 연구한 임진(2023)의 분석 주제이다. <표 4>의 분석 틀과 임진의 틀이 가장 다른 점은 기준이 1차 아비투스와 2차 아비투스로 나누어지며 번역가가 되기 전 성장 과정과 교육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1차 아비투스(번역가 되기 전): 성장 과정, 교육(외국어 습득 포함), 직업 경험

2차 아비투스: 번역장에 진입하여 경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직업 궤적  
번역물 선택과 작업 수주 방식  
개인적인 번역 작업 관행(번역 기간, 장소, 방법 등)  
번역장 규범에 대한 개별 번역가의 태도  
사회구조 및 장 내 구성원과의 상호작용  
유형 자본인 번역료  
각종 무형 자본들(지식, 인적 네트워크, 명성) (임진 2023: 139)



〈표 4〉 선행연구에서 본 결텍스트 분석의 틀

연구자 (연구 대상)	종류
김영신 (역자후기)	번역가의 텔로스 번역작업의 소회, 서평 등
	번역사와 출판사와의 관계
	번역사의 자기 인식
	번역사 눈에 비친 원저자
김순미 (역자후기)	번역 과정의 감정: 번역 맡은 소회, 추억, 번역 동기, 작업 과정 중 심경, 번역 후 심경
	번역 과정과 환경: 작업의 구체적 내용, 작업 환경, 현지 답사, 공역 내용, 출판사 등 외부 주체들의 도움
	번역 원문 판본 설명
	번역 문제와 해결 방법: 언어유희, 고유명사, 이탤릭체, 비속어, 방언 등
	번역 비평과 번역관, 중역, 윤문, 표절 등 문제, 원문 충실성
마승혜, 김순영 (인터뷰)	번역가 정체성에 대한 인식
	오역에 대한 인식
	경제적 보상
	번역가와 작가의 관계
	번역가와 출판사와의 관계
유한내 (바깥텍스트)	사회적으로 번역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인식
	번역사의 정체성
	사회경제적 지위
	사회적 역학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세 단계를 종합해 결텍스트 분석의 틀을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다음 분석 틀은 결텍스트 조사물을 분류하고 분석할 때 적용한다.

- 1) 번역가가 되기 전 성장과정, 교육, 직업 경험
- 2) 번역 동기, 과정, 업무 환경, 외부 지원, 기계/지원도구 사용, 번역가의 삶
- 3) 번역 규범, 번역 문제와 전략, 조사 방법, 품질 관리, 오역 대처
- 4) 번역관, 저작권 문제, 윤리 의식, 이데올로기와 성별 등 영향
- 5) 번역가의 정체성: 자기 인식, 공적 이미지, 사회적 인정과 명성
- 6)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 7) 클라이언트, 관객, 동료 등과 사회적 상호관계/네트워크

### 3. 연구 방법

#### 3.1 연구 대상 황석희 번역가

본고의 분석 대상인 황석희는 1979년생으로 강원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2005년부터 번역을 했다. 2023년 현재 18년 차 번역가로 개봉영화 번역만 11년 차이다. 문서와 케이블 TV에서 시작해 극장 영화번역가로 성공했으며 현재 영화번역가 사이에서도 최고 중 하나다. <NCIS>, <왕좌의 게임>, <뉴스룸> 등 유명 드라마 시리즈를 번역하다가 영화번역가가 된 이후는 <아메리칸 셰프>, <캐틀>, <셰이프 오브 워터>, <1917>, <보헤미안 랩소디>, <돈룩업> 등 재미와 작품성이 뛰어난 영화와 <데드풀>, <스파이더맨: 홈커밍>, <킹스맨>, <엑스맨: 다크 피닉스> 등 블록버스터 시리즈 포함 500여 편의 영화를 번역했다. 영화뿐 아니라 장르를 넘나들며 뮤지컬, 출판만화, 뮤직비디오 등 번역에도 뛰어들었다. <썸씽로튼>을 시작으로 <하테스타운>, <미세스 아웃파이어>까지 6편의 뮤지컬 번역(고승희 2022. 10. 13.)을 했고, 미국 만화가 네이션 W 파일의 『낮선 행성』(손택균 2020. 7. 15.)과 전 세계 1000만 부를 기록한 『마션』의 천재 SF 작가 앤디 위어의 기상천외한 그래픽노블 『체서 크로싱』 등 출판 만화도 번역했다(신연선 2022. 12. 9.). 번역을 넘어 대사 각색에도 참여하기 시작해 2022년에는 애플TV+의 <파친코>에 한국어 대사 각색으로 참여했고(이해림 2022. 8. 9.), 2023년 7월에는 연극 <2시 22분>의 대본 번역뿐 아니라 윤색에 참여했다(김소연 2023. 7. 27.).

황석희 번역가의 개성은 19금 대사까지 찰떡같이 번역하여 ‘약빤 번역가’, ‘번역계의 황태자’로 불리는 점(김호이 2022a. 10. 1.), 이모티콘을 자막에 넣는 과감한 자막 번역 방법(이해림 2022. 8. 9.), 인터넷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방문하여 용어들을 찾고 SNS 트렌드와 방송 클립도 찾아보며 아이디어를 얻고 관객들과 적극 소통하는 점(김호이 2022a. 10. 1.; 이해림 2022. 8. 5.; 허윤희 2022. 7. 23.) 등이다. 실제 황 번역가는 ‘관객과는 가장 가까운 번역가’라는 타이틀을 갖기 위해 오역에 관한 대화, 자막 AS, 영화이야기 등을 하며 관객과 친해지려고 노력한다(김진영 2016. 3. 13.).

또한 각종 배급사와 매체들은 영화를 포함한 대중문화 홍보에 황석희가 번

역했다는 것을 적극 알리고 있어) 영화계에서 황석희라는 이름이 가지는 위상은 대단하다. 배급사들은 황석희 번역가를 이벤트에 초청하여 홍보 효과를 더 하기도 하는데, <그림 1>의 포스터는 “스타 번역가 ‘황석희’와 함께하는 스페셜 GV에 초대”가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데드풀 2> 황석희 GV 포스터



### 3.2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온라인으로 행해졌다. 우선 2023년 7월 17일~27일까지 ‘황석희 번역가’로 구글 검색한 기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분석했다. 황 번역가는 많은 인터뷰를 하고 개봉작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본인 스스로 관객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듯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관객과 적극 소통하고 있는데, 7월 23일 현재 인스타그램에 700개 게시물이 올라 있다. 다수가 번역 관련한 것이라 의미가 있지만,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황석희에 대한 78개 기사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7) “‘유퀴즈’ 초월번역 황석희, 영화 ‘던전 앤 드래곤’ 참여 이달 개봉”(김두연 2023. 3. 9.), “‘믿고 보는 번역가’ 황석희, ‘놈이 우리 안에 있다’ 참여 화제”(조아현 2022. 11. 7.), “번역가 황석희, 전편 이어 ‘킬러의 보디가드2’ 번역 맡아…더 강력한 재미 예고” (최상진 2021. 6. 7.).

## 4. 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황석희 관련 기사를 범주화하고 내용을 분석한다.

### 4.1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보도 기사와 웹사이트 분석

본 연구에서 다루는 황석희 관련 기사 보도는 총 78개이다. 이 중 기사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2015년부터 2023년 7월 27일까지의 기사이며 대부분 황석희 번역가가 2018년 <데드폴>에서 비속어와 밈을 잘 살린 번역으로 인지도를 얻은 후의 기사이다.

<표 5> 황석희 번역가 관련 기사(2015~2023)

주제	세부 주제	횟수	내용
대외활동 (10)	특강/강의	6	강원대, 외대, 덕성여대, 제주대, 번역 워크숍, 클래스 1018)
	방송/행사 출연	4	라디오쇼, 토크쇼, 유키즈, 씨네타운
개봉작 홍보(37)	우수 번역 홍보	18	‘번역 황석희’임을 기사 통해 홍보
	개봉작 GV 참석	19	스페셜 GV(guest visit)와 행사 참석
사회 이슈 (4)	번역가 의견	4	이태원 참사, 심해지는 모욕 표현 비난, “IMF라고 사기 쳐” 비난, 고경표와 일화
개인적 배경(4)	개인사 보도	4	아버지 사망, 아내, 딸바보, ‘지잡대’ 논란
번역 관련 문제(23)	번역관, 태도, 번역 방법	9	번역 전략, 배경 조사 방법, 비하인드 스토리, 커리어 등 ‘인터뷰’
	번역 이슈	6	윤여정 admire, ‘존경’ 아니라 ‘동경’, RM 인터뷰 대사 번역(2건), ‘Hell’의 의미, 오징어게임 번역 논란, 박지훈 오역 논란
	개인 논란	4	번역문 저작권, 오역 악플, 여혐 표현
	콘텐츠 추천	4	책, 영화 소개, 배경 설명

<표 5>의 기사를 보면, 크게 황석희의 대외활동, 번역 관련 인터뷰, 개인사, 사회 참여 등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황 번역가는 특강, 강의, 언론 출연, 개봉작 홍보를 위한 GV(해당 영

화의 감독, 배우, 스텝 등 제작에 참여자를 초대해 관객들과 소통하는 시간) 참석 등을 통해 활발한 대외활동을 하고 있다.

둘째, 번역을 마친 후에는 각종 인터뷰를 통해 번역 방법, 배경과 어휘 조사 방법, 장르별 특징, 고충, 오역 관련 대처법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다. 또한 대중에게 영화나 도서를 추천하고 영화의 배경에 관해 설명하는 등 대중문화 번역과 번역가의 삶을 알리는 데도 적극적이다.

셋째, 황 번역가의 인기가 오르면서 개인사까지 대중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딸바보 모습(정혜연 2023. 7. 10.), “지잡대(지방 소재 대학을 비하하는 뜻의 속어)인데 어떻게 번역가 잘하시네요”라는 인신공격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모습(신진호 2021. 8. 27.) 등도 관객들의 관심사이다.

넷째, 황석희 번역가는 번역 관련 사회적 논란이나 일반 사회 문제 등에도 관심이 있어 필요한 경우 설명과 번역을 추가하여 본인 소셜미디어에 올린다. <오징어 게임> 오역 논쟁이나 윤여정의 오스카 수상 소감 관련 번역 논쟁 등 경우 적극적으로 본인 의견을 인스타그램에 밝히는데, 이를 언론에서 보도한다는 것은 황 번역가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도 공적 콘텐츠임을 보여준다.

선행연구를 통해 영상 ‘번역물’의 바깥텍스트는 홍보가 가장 큰 목적(윤미선 2020a)임을 알 수 있었는데, 황석희의 경우, ‘영화번역가’ 관련 기사 또한 가장 비중 있는 부분은 개봉영화 ‘홍보’(37건)였다. 배급사에서 직접적으로 영화를 홍보하는 37건의 기사 이외에도 번역가 자신이 방송 출연(4), 특강(6), 번역 관련 인터뷰(9) 등을 통해 개봉작 번역 과정에 관해 이야기한 것이 기사화되기도 했는데, 이는 간접적 영화 홍보라 할 수 있다. 결국 <표 5>의 78건 기사 중 55건(약 71%)이 영화 홍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번역가와 관련된 기사 중 오역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황석희 관련 결텍스트에서 ‘홍보’가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은 영상번역계가 추구해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영화번역가의 결텍스트에서 홍보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연도별로 황석희의 번역임을 내세운 작품 홍보 기사와 번역가의 GV 참석 기사를 <표 6>에 정리했다. 아래 리스트가 공식 통계는 아니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2023년 접어들면서 GV 횟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표 6〉 ‘번역가’를 내세운 개봉작과 뮤지컬, 책, 홍보 내용(2015-2023)

내용	횟수	년도	개봉작
개봉작의 ‘번역’ 우수성 홍보 기사	18	2016	위크래프트
		2018	데드폴2, 서치
		2019	리틀드러머걸, 바이스, 썸씽 로튼(뮤지컬), 스파이더맨과 프롬 홈(2건)
		2020	젠틀맨, 낫선 행성(출판 만화), 썸씽 로튼(뮤지컬)
		2022	미세스 아웃파이어(뮤지컬, 2건), 놈이 우리 안에 있다, 갱스 오브 런던2
		2023	체서 크로싱(출판 만화), 플레인, 던전앤드래곤
번역가의 GV 참석	19	2017	킬러의 보디가드
		2018	데드폴 2, 보헤미안 랩소디
		2019	더 길티, 룡샷,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2020	젠틀맨
		2021	더스파이, 캐시 트릭
		2022	갱스 오브 런던2, 나이브스 아웃, 참을 수 없는 무게의 미친 능력
2023	트윈, 오토라는 남자, 더 웨일, 존 워4, 파벨만스, <b>왓차영 화파티, 라이어니스 라이브 코멘터리</b>		

번역물 홍보 기사의 제목, 예를 들어 <‘젠틀맨’ 알고 보니 번역가 황석희가 맡았다 “완벽한 초월 번역”>(배효주 2020. 2. 28.), <‘악뻘 번역 황석희 “스파이더맨과 프롬 홈’ 피터 켄리릿 관촬았나요”>(김영찬 2019. 7. 16.)나 GV 홍보 제목, <‘인싸 번역가’ 황석희, 영화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GV 출격’>(윤기백 2019. 7. 6.), <‘젠틀맨’ 황석희 번역가와 함께하는 GV 전석 매진>(조유경 2020. 2. 7.) 등에서 볼 수 있듯이 황석희에 대한 수식어, “믿고 보는”, “완벽한 번역”, “악뻘 번역”, “인싸 번역가” 등에서 그를 하나의 흥행 보증수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객과의 만남도 오프라인 GV뿐 아니라 온라인 형식이 더해지고 있다. 2023년 황석희가 참석한 ‘왓차영화파티’는 영화 전문가들의 해설(코멘터리)을 들으면서 채팅으로 소통, 원격에서 동시에 영화를 시청하는 이벤트다. 7월 24일에 있었던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라이어니스 라이브 코멘터리’ 역시 유사한 형식의 만남으로 번역가의 영역을 문화평론가 역할까지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소통 창구라 할 수 있다.

## 4.2 황석희 번역가에 대한 인터뷰 분석

4.2절에서는 2장에서 종합한 결텍스트 분석의 틀 (1) 번역가가 되기 전 성장 과정, 교육, 직업 경험, 2) 번역 동기, 과정, 업무 환경, 외부 지원, 번역가의 삶, 3) 번역 규범, 번역 문제와 전략, 조사 방법, 품질 관리, 오역 대처, 4) 번역 관, 저작권 문제, 윤리 의식, 이데올로기와 성별 등 영향, 5) 번역가의 정체성: 자기 인식, 공적 이미지, 사회적 인정과 명성, 6)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7) 클라이언트, 관객, 동료 등과 사회적 상호관계/네트워크)의 순서에 따라 <표 5>에서 범주화한 황석희 관련 기사를 정리한다. 어떤 질문과 답변이 오갔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들여다보고, 영상번역 생태계에 관해 분석한다. 4장의 밑줄은 필자의 것이며 답변 중 질문과 관련성이 많은 중요한 부분이다.

### 4.2.1 영화번역가가 되기 전 성장 과정과 배경, 직업

임진(2023)의 번역가 분석 틀에 의하면 개인의 성장 과정, 교육(외국어 습득 포함), 직업 경험 등 1차 아비투스<sup>1)</sup>는 번역장에 진입하여 활동하는 2차 아비투스<sup>2)</sup>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건이 된다. 번역가를 둘러싼 생태계를 관찰하는 본 연구의 분석에서도 1차 아비투스를 첫 번째 기준으로 삼았다. 실제 황석희 번역가와의 인터뷰 질문과 답변 중 상당 부분이 교육 배경과 번역장 진입을 위한 투쟁 등 1차 아비투스와 관련 있었다. 황석희 번역가는 본인 경력에 대해 외국 경험이나 번역 정규 교육이 없이 다양한 문서, 다큐멘터리, 토크쇼 등을 번역하면서 실력을 닦는 동시에 다양한 통로로 영화번역가가 되는 길을 개척했다고 밝혔다. 이를 볼 때 국내 영상번역장에서 꼭대기인 개봉 영화번역가가 되는 과정은 번역 교육기관, 인증 시험, 협회 지원 등 제도적 장치가 없이 철저히 번역 경험, 클라이언트의 노동 착취를 버티는 힘, 시장 개척을 위한 개인의 노력 여하에 의존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플랫폼, OTT 시장의 발전으로 영상번역계가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가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부분의 지원과 발전이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 a. 영화번역장에 진입을 위한 노력과 소회

- 1) “영어교육과를 나왔다. 어디 가서 자랑할 만한 실력은 못 된다.(웃음).... 계약서 매뉴얼 서신 같은 단순한 번역 작업을 하다가.... ‘닥터 필 쇼’의

번역을 맡게 됐다.” (정시우 2016. 3. 2.)

- 2) “정글이었다. 8년 걸렸다. 처음엔 잠도 못 자고 고되게 일하는데 페이가 너무 쪼다.... 6개월이 지나고 나니 클라이언트도 바뀌고 좀 덜 착취당하는 일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2~3년 지나니까 한결 나왔다.” (이해림 2022. 8. 5.)
- 3) “시장 개척이 굉장히 빠른 편이다.... 극장 영화를 작업하게 되기까지 국내의 영화 수입사란 수입사는 최소 한 번 이상 다 전화해봤다.” (이해림 2022. 8. 5.)
- 4) “2000년대 중반에는 한창 케이블 콘텐츠를 번역할 때라 극장 번역 데 뷁는 실현 가능성 없는 꿈같은 일이었다. 그 당시 가장 큰 블록버스터 외화가 스파이더맨 시리즈였는데 작은 영화 한 편도 번역할 기회가 없던 때라 ‘저런 영화를 번역할 일은 평생 없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한때 꿈만 꾸던 영화를 번역하게 된 것만 해도 사실 믿기지가 않고 감사한 일이다.” (김영찬 2019. 7. 16.)

#### b. 외국어 교육, 해외 경험

- 1) “전혀. 해외에 나간 것도 신혼여행 때 한번 간 게 처음이자 끝이다. 영어를 잘하면 물론 번역하는 데 좋겠지만, 번역은 해석과는 다른 행위다. 영어보다 중요한 건 한국어 능력이다.” (허윤희 2022. 7. 23.)

#### 4.2.2 작업 동기, 작업 과정, 업무 환경, 삶

두 번째 분석은 번역가의 작업 과정과 일상을 주제로 한다. 성공한 후 황석희의 대외적인 모습은 GV 참석, 인터뷰, 강연 등 화려해 보이지만, 기사 분석에 의하면 대외활동은 황 번역가 삶의 극히 일부분이 대중 앞에 드러난 것일 뿐 그는 일반적인 프리랜서가 그렇듯이 매일 낮시간과 저녁 9시~새벽 3시까지 번역에 매달리는 워라벨이 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다. 스파티가 된 대본을 일주일에 1편 정도 번역하며 일 년에 50편 정도 번역하는 일정이다. 영화를 받아서 번역하고 납품하는 수동적인 일상으로 보이지만 작품 선정과 번역 과정에서 황석희는 매우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 최수연(2015: 285)에 의하면 황석희는 <인사이드 르윈>(2013)의 부산국제영화제 상영 자막이 있었음에도 개봉작은 자신이 번역하고 싶다고 영화사에 먼저 연락해 극장관을 다시 번역하였다. 이는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실제 인터뷰에서도 황석희는 본인이 하고 싶은 작품의 경우 영화사에 직접 연락하여 번역 요청을 한다고 말한다.



**a. 번역가의 일상**

- 1) “아침에 일어나서 쪽 작업을 해요. 요즘은 아이의 등원을 제가 하고 있어서 그렇지만 원래는 등원을 제가 시키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주구장창 번역 작업을 하고 오후 3시가 되면 아이의 하원을 시키죠. 그리고 집에 와서 6시까지 작업을 한 다음에 저녁을 먹고요.... 저는 이때부터 새벽 3시까지 다시 작업해요. 매일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가 여유가 나는 날은 아이랑 노는 시간이 끝나면 저녁에 2시간 정도 복식을 해요. 다시 와서 씻고 또 새벽 3시까지 일하는 생활의 반복이죠. 그런데 저만 그런 건 아니에요. 다들 이렇게 번역하시는 것 같아요.” (신연선 2022. 12. 9.)
- 2) “영어를 듣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전에는 평소에도 영어 콘텐츠를 늘 채생해놓고 살았는데 지금은 음악 외엔 잘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흘러드는 건데도 일처럼 느껴지거든요.” (김호이a 2022. 10. 1.)
- 3) “워라벨 같은 게 전혀 없는, 일반 하는 삶이라 심신이 늘 피곤해요. 체력이 부족할 때가 가장 힘들죠. 마감할 것들은 많은데 잡자기 몸이라도 아프면 걱정이 배가 되고요. 우린 병가 같은 걸 낼 수 있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당장 제 일정이 밀리면 그 뒤로 일정이 다 밀려요.” (김호이a 2022. 10. 1.)
- 4) “번역가로서는 치열하고 욕심 많고 과몰입하는 타입이에요. 그래서 무리할 때도 많고 끝도 없이 예민해지기도 해요.... 에너지의 90% 이상을 작업할 때만 쏟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곤 해요..” (김호이a 2022. 10. 1.)

**b. 번역 진행 과정**

- 1) “나만 볼 수 있게끔 암호화된 영상이 온다. (테드풀) 처음 볼 때가 가장 신났다. CG 작업이 덜 된 영상인데도 너무 재밌더라.” (김지혜 2016. 3. 4.)
- 2) “영화사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해외 업체가 만들어 놓은 전용틀이 있다. 해외에서 스크립트 하는 분들이 대사별로 호흡을 잘라놓는다. 그걸 스폿팅(Spotting)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순서대로 맞춰서 번역한 대사를 기재한다.” (김지혜 2016. 3. 4.)

**c. 작업 속도: 영화 한 편 번역하는 데 걸리는 속도**

- 1)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허윤희 2022. 7. 23.)

## 4.2.3 번역 규범, 번역 문제와 대응법, 번역 전략, 품질 관리, 오역

황석희 번역가는 되도록 원작 연출자 의도를 최대한 살린 번역을 지향하지만 동시에 현지화를 위해 언어와 문화 트렌드를 익히기 위한 노력을 한다. 장르별 배경지식 공부에도 매달리며 분야 전문가의 자문도 구한다. 하나의 콘텐츠가 장르를 넘나드는 현재 트렌드에 발맞추려면 한 장르의 번역을 뛰어넘는 지식과 역량을 쌓아야 함을 강조한다. 자막 형식이나 단어 선정에 있어 영상번역의 제약과 규범을 넘어서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다.

오역 논쟁은 황석희 포함 모든 번역가에게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에 그의 인터뷰 대부분 이 문제가 등장한다. 황석희 번역가는 오역은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되도록 관객 의견에 맞춰 신속히 수정, 반영하려 한다고 답한다. 그러나 오역 스트레스로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것은 대중이 번역가에게 주는 기대와 부담의 수준이 과도함을 보여준다. 여러 인터뷰에서 오역이 있으면 바로 인정하고 되도록 관객의 기호에 맞추려고 노력한다는 대답에서도 번역가의 관객과 소통 의지와 함께 고뇌를 볼 수 있다. 오역에 대한 스트레스는 번역가에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일례로 최수연(2015)에 폭넓게 인용되었던 황석희 번역가의 번역 관련 개인 웹사이트와 그의 페이스북 계정은 현재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또한 g-2의 황 번역가 대답과 같이 피드백 이메일 계정도 오역 시비에 대한 두려움에서 온 공황장애 이후 닫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번역 표현을 찾기 위한 번역가의 노력이 긍정적 사례로 발전하기도 하는데, 한 예는 f-3이다. 황석희는 개봉작에 오역이 있는 경우 블루레이로 넘어가기 전에 영화사에 요구해 전면 수정한다고 답했다. 최수연(2015: 285)에 의하면 황 번역가는 영화 <월플라워>의 블루레이를 제작 판매하는 업체에 연락해 본인의 극장 개봉작 번역 전체를 감수했다. 개봉 시점에서 2년이 지나가 번역 스타일도 변하고 비효율적인 자막이 눈에 띄었으며 배급사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되지 않았던 점을 반영하고자 한 것이다. 영상번역가에게 부과되는 의무 이상으로 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과정에서 있었던 클라이언트나 연출자와의 관계를 대중에 공개한 영상번역가의 예는 황석희뿐이다(최수연 2015: 286). 오역을 줄이고 시대에 맞는 참신하고 적절한 표현을 찾아가는 부단한 노력,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중요 주체들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은 번역가들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a. 번역 규범: 의역과 직역**

- 1) “영화 ‘포레스트 검프(1994)’에서 주인공이 얼마나 큰 부자인지를 표현하는 대사가 나온다. 한국에서 개봉할 때 “난 정주영처럼 돈이 많다”고 번역했다. 이런 번역은 2000년 초반까진 통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당연히 지적을 당할 것 같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의 수준이 높아졌고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같은 배경지식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직역을 좋아하시는 것 같다.” (유부혁 2018. 5. 23.)

**b. 문화/언어 트렌드 반영**

- 1) “언어 트렌드를 모르면 관객을 좇기 어려워졌다.” (유부혁 2018. 5. 23.)
- 2) “인터넷의 거의 모든 커뮤니티를 다 돌아다녀요... SNS 트렌드랑 방송도 클립으로라도 다 봐야 돼요. 그래야 써먹을 수 있어요. 캐릭터에 따라서 유행어를 쓸 수도 있고요.” (김호이<sup>a</sup> 2022. 10. 1.)

**c. 장르별 문화/서사와 배경 지식**

- 1) “요즘은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 만화, 게임, 소설, 웹툰 등 모든 플랫폼 사이를 건너뛴다. 나는 그런 것들을 다 좋아한다. 성향이 원래 좀 ‘덕후’다.... 이틀테면 <언차티드> 같은 게임 원작 영화는 당연히 게임을 해본다. 게임 팬들이 영화화된 결과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다. 앞으로 게임 원작 영화가 굉장히 많아지는 추세라 게임기 두 대를 장만했다. 플레이스테이션과 엑스박스.” (이해림 2022. 8. 5.)
- 2) “게임에서 워크래프트를 만났던 팬들을 위해 고유명사만큼은 변경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했다. 단어 하나를 위해서 블리자드코리아 로컬팀과 끊임없이 상의를 이어왔으며 그 결과 게임 속에 등장하는 고유명사와 영화 속 고유명사는 99% 일치하게끔 만들었다.” (김지만 2016. 6. 4.)
- 3) “영화 ‘소프트라이프’를 번역할 때 기자들을 만나 해당 업의 용어를 배웠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시리즈의 경우엔 포대장 출신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았다. 그 덕분에 그럴듯한 작품이 나왔다. 또 법정 영화는 변호사들을 만나 공부했다.” (유부혁 2018. 5. 23.)

**d. 번역 전략과 고민의 과정**

- 1) [<스파이더맨 파프롭홈>의] “Peter tingle’은 들을 때 유치해야 하고, 피터 퍼커가 오글거린다고 싫어할 만한 표현이어야 하며, 한국 관객들이

봤을 때 스파이더 센스의 발동을 이미지화해서 연상할 수 있는 표현이어야 했다...결국 ‘피터 짜리릿’으로 결정하고도 관객 반응이 좋을지 나쁠지 확신하지 못했고 개봉일에 복권을 굶는 심정으로 조심스럽게 관람 후기를 살피며 욕만 먹지 않기를 빌었다.” (김영찬 2019. 7. 16.)

**e. 영상번역의 제약**

- 1) “필름이 디지털화되는 동안에도 자막은 여전히 아날로그 시대 두 줄 규격 그대로다. 제약을 벗어날 방법을 고민하는 때가 많다. 이모지나 “씨호박” 같은 경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는데 구현이 되는지 알아봤더니 된다고 하더라. 대사에 셰익스피어 같은 고어(古語)가 막 나온다? 그 부분은 자막 서체가 고풍스럽게 명조 같은 세리프로 바뀌면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이해림 2022. 8. 5.)
- 2) “케이블들은 (영화에 비해) 굉장히 까다롭다.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사전수준으로 해야 한다. 수위계약도 영화보다 훨씬 많다. 번역회사나 채널에서 번역에 관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정시우 2016. 3. 2.)

**f. 오역 문제와 대처법**

- 1) “한국은 전 세계에서 자막에 가장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다.” (이해림 2022. 8. 5.)
- 2) “재작년에 개봉한 ‘아메리카 셰프’에서도 오역을 하나 했다. ‘스윗브레드(SweetBread)’라는 게 나오는데, 그걸 ‘꿀빵’이라고 번역했다. 알고 보니 ‘소의 흉선’을 의미하는 거였다... 그때 그 오역이 이슈가 조금 됐다. 그래서 바로 사과문을 썼다. 내 경우엔 오역이 이슈가 되면 바로 사과를 하는 편이다.” (정시우 2016. 3. 2.)
- 3) “[오역 발견되면] 아우~ 미치지. 어떻게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영화가 블루레이 등으로 넘어갈 때 다시 달라고 해서 수정을 한다.” (정시우 2016. 3. 2.)

**g. 오역 트라우마. 공황장애**

- 1) “몇 년 전에 오역 논란이 크게 터진 적이 있다. 다른 번역가가 작업한 영화였는데, 마침 두 달 뒤에 ‘테드폴2’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기사가 수십 건씩 뜨고 모든 게시판에서 번역가를 욕하는 거다. 그걸 보고 있는 심정이 어땠나 하면,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다가 지뢰를 밟고 몸이 누더기가 된 걸 보는 기분. 이제 내가 걸어갈 차례인데... 갈한다고 지뢰를 피해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저도 무조건 밟는 거다. 지

뢰가 크나 작으나 하는 문제일 뿐.” (허윤희 2022. 7. 23.)

- 2) “사람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식은땀이 났다... 그 뒤에 더 심해졌다. 뒤에서 누가 공격할 것 같아서 식당에 가도 벽에 딱 붙어 있어야 했다. 그때부터 피드백 이메일 계정을 닫았다.” (허윤희 2022. 7. 23.)

#### 4.2.4 번역관, 저작권, 윤리 의식, 이데올로기와 성별 등 영향

황석희 번역가는 원문을 충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동시에 인물의 캐릭터를 생동감 있게 전하려 하지만 소수자에 대한 감수성과 사회적 변화, 이데올로기 등에 예민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a. 번역관

- 1) “각자의 번역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번역도 창작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 개인적인 번역관으로는 번역가는 전달자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번역가는 충실한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김호이b 2022. 10. 1.)

##### b.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 1) “이 인물이 어떤 캐릭터인지, 어떤 말투를 쓸 법한 캐릭터인지 연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욕설을 번역해야 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비난을 번역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려고 해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이나 가난한 사람들, 더 크게 본다면 여성들까지” (신연선 2022. 12. 9.)
- 2) “최근 영화 ‘타이타닉’이 재개봉했다. 당시 자막을 그대로 썼는데 당시는 자막이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자막 사고, 오역이라고 지적을 하더라. 여성이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존대하는 말투엔 화를 낸다. 지금은 당연한 것 같은데 10년 후 분명 ‘어떻게 저런 자막을...’이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유부혁 2018. 5. 23.)

#### 4.2.5 번역가의 정체성: 자기 인식, 공적 이미지, 사회적 인정과 명성

황석희가 생각하는 번역가는 기본적으로 ‘비가시적’ 존재이며, 그에게는 클라이언트의 상업적 성공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다. 이를 보면 3장의 다양한 기사에서 번역가가 각종 행사와 개봉작 GV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번역을 넘어서 클라이언트의 흥행을 돕는 조력자로서 역할에 충실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영화와 같이 작품성뿐 아니라 흥행성이 중요한 상업 장르에서는 번역이 단순한 충실성을 넘어 재미와 흥미를 고조시켜 관객 수를 늘리는데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동시에 번역가의 역할이 번역을 넘어 작품의 홍보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작품의 흥행 성공을 번역 품질과 어떻게 연관지을 것인지는 중요한 부분으로 향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이슈이다.

번역가의 역할에 관한 또 다른 이슈는 하나의 콘텐츠가 영화, 소설, 웹툰, 게임 등을 넘나드는 시기에 한 번역가가 영화뿐 아니라 뮤지컬, 연극,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의 번역가, 각색가, 문화비평가로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점이다. 다양한 역할이 가능성을 실제 보여주고 있는 황석희 번역가는 이것을 중요한 트렌드로 보고 있다. 이것은 인지도가 높고 역량이 큰 황석희 번역가 개인의 영역 확대로 볼 수도 있으나 대중문화계 전체의 번역가들에게 새로운 진로를 열어 주었다는 면에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

a. **번역가로서 정체성:** 번역 방법, 원하는 수식어, 어떤 번역가인가?

- 1) “제가 생각하는 번역가는 기술자예요. 번역가의 본질적인 임무는 연출가의 의도, 원작자의 의도를 충실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고승희 2022. 10. 13.)
- 2) “번역가는 사실 늘 원문 뒤에 숨어 있고, 드러나지도 않잖아요... 제 경우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이건 반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저한테 가장 기쁜 건 클라이언트에게 득이 될 때예요... 영화 번역을 할 때도 영화가 잘 되면 너무 좋아요... 제가 관여해서 작업한 결과물들이 어쨌든 상업적으로 좋은 성과를 냈으면 좋겠어요.” (신연선 2022. 12. 9.)
- 3) “처음에 목표했던 대로 지금도 여전히 ‘관객과 가장 가까운 번역가’라는 수식어이면 충분해요. 너무 영광이고 기쁘고요.” (김호이a 2022. 10. 1.)

b. **분야 확장. 번역가 + 각색가**

- 1) 애플TV+ <파친코> 에 자막 번역이 아니라 대본 각색을 한 것은 “처음엔 단순히 영어로 쓰인 대본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사실 이미 번역은 돼 있었는데 배우가 연기할 수 있는 대본 상태가 아니었다. “그는 밥을 먹었니?” 같은 느낌이었다... 책임자를 못 찾아냈던 것이다.” (이해립 2022. 8. 5.)

- 2) “완성된 드라마의 자막이 아니라 배우들이 발화하는 그 대사를 내가 만든 것이니까 이제까지 해온 것과는 정반대 방향의 번역이다... 신기할 정도로 그 비슷한 의뢰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각색, 윤색 일들이 많다.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 (이해림 2022. 8. 5.)

**c. 장르 확장: 뮤지컬 번역가**

- 1) (뮤지컬 썬셋 로튼 참여) “제작자 분이 직접 연락을 주셨어요. 제가 번역한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니 수십 번 들은 노래 가사가 새롭게 들렸고 ‘데드풀’을 보니 언어유희에도 감이 좋다며, 가사 번역과 언어유희 둘 다 되는 당신이 꼭 해달라고. 덜컥 ‘하쨌습니다’ 해버렸네요.” (이태훈 2020. 9. 16.)
- 2) “영화 번역가는 영화 번역만 하고, 뮤지컬 번역가는 뮤지컬 번역만 해야 한다는 업계와 번역가 스스로가 가진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점차 그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번역가들의 활동 반경이 점점 더 넓어지고 업계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고승희 2022. 10. 13.)

**d. 인생관, 인생에 영향을 미친 대사는?**

- 1) “리즈 위더스푼 주연의 영화 ‘와일드’ 엔딩을 보면 “홀러가도록 둔 인생은 얼마나 야생적이었던가!”가 나온다...인생이 너무 고단해서 떠난 길에서 그런 깨달음을 얻는데, 보면서 많은 걸 느꼈다.” (정시우 2016. 3. 2.)

**4.2.6 사회경제적 지위, 보수**

황석희 번역가가 보는 번역가의 현실은 편안한 것, 화려한 것이 아니며, OTT 서비스의 부상으로 예전보다 보수는 나아졌으나 여전히 번역가는 낮은 보수를 받으며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이다.

**a. 제작비 중 번역가의 보수. OTT 론칭 이후 보수 변화.**

- 1) “홍보 마케팅 비용에 비하면 번역료 비중이 매우 낮다.” (유부혁 2018. 5. 23.)
- 2) “양질의 일자리가 훨씬 많아졌다. 서비스 론칭 때마다 일감이 쏟아지다 보니 번역가에 대한 대우가 많이 향상됐다.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무너져가던 업계였는데 OTT 서비스가 생겨나며 숨통이 트였다. 번역가와 OTT사가 직접 계약하거나, 아니면 해외 벤더를 거치니까 전처럼 번

역 단가를 무작정 낮출 수 없게 됐다.” (이해림 2022. 8. 5.)

**b. AI 이후 번역**

- 1) “영화나 드라마 등 구어 번역에서도 AI가 꽤 번역에 도움이 되고 있다. 번역 회사들이 개발한 번역 AI들이 번역가의 업무를 덜어간 만큼 번역가의 페이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런 시기일수록 부티크 시장을 구축해 거기 들어가 있어야 살아남는다.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 같다.” (이해림 2022. 8. 5.)
- 2) “오히려 의사, 변호사, 검사 등이 AI로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말이 많아요. 그 직업이 대체 직업 1순위예요... 애초에 그 직업을 하지 말라는 이유에 AI는 핑계예요. AI가 여러 분야를 잡아먹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일자리를 완전히 빼앗지는 않아요.” (김호이 2022b. 10.1.)

**c. 번역가 현실**

“알려진 번역가가 돼서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번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굶어 죽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인 번역가의 삶을 견딜 수 없다면, 번역 천재라도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고승희 2022. 10.13.)

**4.2.7 사회적 상호관계: 클라이언트, 관객**

4.2.3항에서 황석희 번역가는 영화사나 클라이언트와 번역 수수부터 오역 수정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해 긴밀한 상호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황석희는 관객과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평소에 좋은 관계를 쌓고 있다. 일반적으로 번역 논쟁이 벌어지는 경우 “영화의 관련 글에 댓글은 물론이고, 영상번역가의 블로그 댓글, 쪽지, SNS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직접적으로 비난을 표현하는 관객도 많다”(최수연 2015: 306). 이런 경향은 주목받는 영화, 주목받는 번역가의 경우 더 심해지는데, 황석희는 오히려 자신의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공유하고 관객이 바라는 스타일에 맞추으로써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다고 본다. 그는 동료나 후배들과 인맥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것이 번역가로서 성장에 중요한 요소라 생각한다. 번역은 지극히 개인적인 작업이지만 클라이언트, 관객, 동료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번역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번역 품질을 높이며 궁극적으로 본인의 영역을 확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a. **관객과 관계:** 관객 수준 향상, 적극적 평가

- 1) “‘관객 수준이 그만큼 높아진 거니까. 게시판에서 번역가를 욕하거나 오역을 지적하는 글이 나오면, 이제는 다른 분이 반박한다. 원래 글자 수가 제한돼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함축했지만 같은 뜻이라고 두둔하는 분도 늘었다. 그러다 보면 건전한 담론이 오가니까 번역가 처지에서 괴롭기만 한 건 아니다.’ (허윤희 2022. 7. 23.)
- 2) “‘내 스타일이 아니라도 관객에 맞춰 조정할 수 있는 유연함은 갖추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다.’ (정시우 2016. 3. 2.)

b. **동료 영상번역가들과 관계**

- 1) “‘두 줄의 승부사’라는 다음 카페가 있는데 2007년에 제가 만들었어요. 한국에 있는 유일한 영상 번역 커뮤니티예요. 프로 번역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커뮤니티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인맥을 쌓는 거죠. 처음에는 10명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경력이 제일 없었어요. 4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경력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네트워크를 쌓는 게 중요해요.” (김호이b 2022. 10. 1.)

## 5. 논의 및 결론

스타 번역가와 그의 번역을 둘러싼 결텍스트를 연구하는 것은 성공한 번역가의 삶을 통해 현역, 혹은 잠재적 번역가들에게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흩어져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한 인물과 그를 둘러싼 생태계를 파악하기란 쉽지 않기에 번역가에 관한 방대한 기사와 인터뷰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결텍스트의 분석 틀을 먼저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황석희 번역가가 영상번역계의 정상에 위치한 개봉 영화번역가라는 지위에 오르기까지의 여정, 번역가의 일상과 고충, 번역 규범, 번역관과 이데올로기, 정체성, 보수와 지위, 사회적 상호관계 등 7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첫 번째 질문은 인터뷰와 보도 기사를 중심으로 황석희 번역가의 바깥텍스트를 내용별로 정리하는 것이었으며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해냈다.

첫째, 인지도 높은 번역가의 기사는 개봉작 성공이라는 매우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황석희라는 브랜드를 내세우며 흥행에 도움이 될 수식어를 제목

에 배치하고 내용에서도 번역 방법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넣어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한다. 황 번역가 또한 본인의 가장 큰 기쁨은 영화가 성공하는 것, 번역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에게 득이 되는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흥행성이 짙은 상업 번역에서는 제품의 흥행에 일조하는 것이 번역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는 실제 많은 GV, 영화 설명회, 영화 ‘라이브 코멘터리’까지 참석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 또한 포괄적으로는 번역 행위의 확장 선에서 행해지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번역가 스스로 영향력 있는 대중문화 전도사로서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였다. 지금까지 번역가와 관련된 기사들이 맹목적인 오역 논쟁에 치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황석희 관련 곁텍스트가 번역을 통해 영화 흥행몰이를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점은 배급사나 언론, 번역가 모두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라 볼 수 있다.

둘째, 황석희는 영화번역가로서 인지도를 얻게 되면서 사회 참여자로서 번역가의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본인의 번역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번역 논쟁에 의견을 제시하고, 각종 사회 문제 관련 통찰력 있는 글을 쓰며, 문화와 언어 관련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또한 대학 특강을 통해 미래 번역가 지망생들에게 진로를 설명하고,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도 영화번역의 원칙, 자막 제작 과정, 영화번역 트렌드, 영화번역가 되는 법, 실습을 중심으로 한 강의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 참여의 모습은 번역가의 가시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셋째, 황석희 번역가가 인지도를 얻으며 그동안 비가시적인 존재였던 번역가의 개인사, 취미, 일상, SNS 활동 등에도 일반 대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는 황석희라는 인물 하나에 국한된 일이긴 하지만 번역가도 좋은 번역과 사회 참여를 통해 가시적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지금까지 번역가가 유명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오역 논쟁 때문인 경우가 많았으나 황석희는 ‘초월번역’, ‘믿고 보는 번역’이라는 수식어를 얻으며 ‘황석희 번역 스타일’과 ‘황석희 번역가’가 하나의 브랜드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번역계에서도 장르를 넘나들며 뮤지컬, 출판 도서, 연극 등으로 영역을 확장하였고 영화 각색, 영화 평론 등에도 참여하여 번역가들이 지금까지 분류되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역할을 맡을 수 있으며 한 영역에만 머물

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두 번째 질문은 황석희를 둘러싼 결텍스트 분석을 통해 영화번역의 생태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것으로, 다음 같은 현상을 확인했다.

첫째, 번역가와 관객의 관계이다. 영화번역에 관해 쏟아지는 기사와 개봉작 GV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문화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번역에 대한 세상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전세계 문화가 온라인상에서 실시간 공유되면서 관객의 언어와 문화 수준이 높아지고 이들이 기대하는 번역의 수준 또한 크게 올라가고 있다. 특히 장르별, 시리즈별로 소위 ‘덕후’들이 늘어나면서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이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이제 관객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적극적인 평가자가 되고 있다. 따라서 대중문화 번역은 장르와 서사에 따른 철저한 배경 고증과 용어 선택, 장르 간 표현의 일관성 맞추기, 현지화와 외래화 사이의 줄타기를 해야 하는 분야가 되었다. 번역가의 역할 면에서는 하나의 서사가 소설, 영화, 게임, 만화 등 장르를 넘나드는 콘텐츠가 늘면서 하나의 장르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서사를 가진 유사 장르 콘텐츠를 번역할 기회가 많아졌다. 이는 황석희 번역가가 몸소 보여주고 있다. 언어 면에서는 인터넷 밈과 유행어가 늘어나면서 언어 습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기, 대중문화 번역가들은 각 장르나 신화, 서사의 고증뿐 아니라 유행어, 욕설, 신조어 등 언어 트렌드를 파악하고 반영하는 번역을 해야 하게 되었다.

두 번째, 제도적 측면에서 최근 영화번역계에 나타나고 있는 부정적인 측면도 확인되었다. OTT 시장 확대로 일감이 많아지고 보수도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품질 영상번역과 저품질 사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으며 저품질 시장은 인공지능, 기계번역으로 대체될 가능성까지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영상번역에 대한 기대는 높지만 공식적으로 영상번역을 배울 수 있는 창구는 많지 않다. 황 번역가 경우도 드라마 번역만 하던 시기 영화 번역을 하고 싶어 극장을 찾아 스스로 공부하여 배웠다고 하는 점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즉,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영상번역가로 성공하는 것은 개인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분야적 한계를 보여준다.

세 번째, 번역가를 둘러싼 오역 논쟁 문제이다. 사회적 가시성을 가지고 있는 황석희 번역가조차 번역가는 비가시적 존재라고 하듯이 특히 영상번역계에서 번역가가 가시적 존재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역 비판이 난무하는

거친 현실은 더욱 번역가를 비가시적 존재로 만들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번역가들 쪽에서는 관객과 가까워지고 그들의 기대를 이해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급사, 번역가, 관객 모두가 엔드 크레딧 설명제는 번역가에 대한 오역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번역가가 당연히 누려야 할 특권이라는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아직도 난무하는 오역 논쟁과 번역가에 대한 관객들의 인신공격 등 문화를 모든 주체가 함께 극복해야 한다는 과제가 남아 있다.

네 번째, 번역가와 배급사, 영화사, 동료 번역가들과의 관계이다. 황석희 번역가는 영화 홍보를 위해 개인적으로도 배급사가 주최하는 GV, 온라인 영화 설명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영화 번역 수주, 오역 수정 등 문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동료 번역가들과도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서로 지원하며 다양한 문제에 관해 대화하고 있다. 이는 영상번역 주체들 간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결텍스트를 통해 번역가를 연구하는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출판번역, 문학번역, 주변텍스트 등 ‘특정 장르와 특정 종류에 편중되어’(임진 2023: 2) 있었다. 본 연구는 출판번역을 벗어난 영상번역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위의 연구들과 차별되며 바깥텍스트를 다루었다는 점에서도 주변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들과 차별된다는 의의가 있다. 영상번역 관련 결텍스트 연구는 최근 들어 증가 추세이기는 하지만 국내외를 막론하고 ‘번역물’을 중심으로 결텍스트가 추가되거나 삭제되는 양상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는 ‘영상번역가’ 관련 결텍스트를 연구했다는 점에서도 영상번역계 선행연구들과 차별되며 번역사회학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황석희라는 영상번역계 최고에 올라 있는 번역가 한 명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영상번역가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관련하여 “한 명의 번역가를 대상으로 집중 분석하는 경우 번역 생태계에 관한 균형 잡힌 의견을 반영하기 어렵다”(마승혜와 김순영 2021: 39)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영상번역의 대표성을 지닌 개봉영화 번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은 영상번역 작업 과정, 정체성, 관련 주체들의 상호작용 등 생태계에 관해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한계는 바깥텍스트의 종류가 주

로 기사에 한정되었고, 번역가의 인스타그램 콘텐츠나 관객들이 작성한 후기, 블로그 등을 분석하지 못한 점이다. 이 부분은 번역 생태계를 파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료이기에 후속 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순미 (2013) 「결텍스트를 통한 출판사의 문학번역 전략 홍보」, 『통번역교육 연구』 11(3): 5-27.
- 김순미 (2014) 「번역사의 지위와 가시성을 중심으로 본 역자후기의 내용과 기능」, 『번역학연구』 14(3): 33-81.
- 김영신 (2012) 「역자후기를 통해 본 번역사의 자기 이미지 연구」, 『번역학연구』 13(4): 7-27.
- 마승혜, 김순영 (2021) 「번역사회학적 측면에서 문학번역가 인식 비교 분석 - 국내/영미권 번역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22(5): 37-67.
- 박선희 (2015) 「번역문의 결텍스트 - 주변텍스트와 바깥텍스트에 대한 정의」, 『번역학연구』 16(1): 7-33.
- 유한내 (2013) 「번역사의 사회적 가시성 연구: 정영목 譯 <로드>의 후텍스트 분석」, 『통번역학연구』 17(4): 101-119.
- 윤미선 (2020a) 「한국 영화 영어 더빙 결텍스트 분석: 1960-70년대 영화 세 편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2(1): 159-181.
- 윤미선 (2020b) 「영상번역의 결텍스트: 한국 영화 번역본의 오프닝 크레딧 분석」, 『번역학연구』 21(2): 165-192.
- 임진 (2023) 『경제 경영서 번역장에 대한 연구 - 번역가 3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전현주 (2009) 「역자의 불가시성 - 역자후기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2(2): 211-229.
- 최수연 (2015)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Angelelli, Claudia (2014) 'The Sociological Turn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7(2): 125-128.

- Batchelor, Kathryn (2018) *Translation and Paratexts*, London: Routledge.
- Batchelor, Kathryn (2021) 'Translation, Media and Paratexts', in Esperança Bielsa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Translation and Media*, New York: Routledge, 122-135.
- Chesterman, Andrew (2009) 'The Name and Nature of Translator Studies', *Hermes* 42: 13-22.
- Consalvo, Mia (2017) 'When Paratexts Become Texts: De-centering the Game-As-Text', *Critical Studies in Media Communication* 34(2): 177-183.
- Gray, Jonathan (2010) *Show Sold Separately: Promos, Spoilers, and Other Media Paratexts*, New York: New York UP.
- Gray, Jonathan (2015) 'Afterword: Studying Media with and without Paratexts', in Lincoln Geraghty (ed.) *Popular Media Cultures: Fans, Audiences and Paratexts*, New York: Springer, 230-237.
- Klecker, Cornelia (2015) 'The Other Kind of Film Frames: A Research Report on Paratexts in Film', *Word & Image* 31(4): 402-413.
- Matamala, Anna (2011) 'Dealing with Paratextual Elements in Dubbing: A Pioneering Perspective from Catalonia', *Meta* 56(4): 915-927.
- O'Sullivan, Carol (2018) "'New and Improved Subtitle Translation": Representing Translation in Film Paratexts', in Irene Ranzato and Serenella Zanotti (eds) *Linguistic and Cultural Representation in Audiovisual Translation*, New York: Routledge, 265-279.
- Skare, Roswitha (2021) 'The Paratext of Digital Documents', *Journal of Documentation* 77(2): 449-460.
- Stanitzek, Georg (2005) 'Texts and Paratexts in Media' (Translated by Ellen Klein), *Critical Inquiry* 32(1): 27-42.
- Venuti, Laurence (1995) *The Translator's Invisibility*, London: Routledge.

<인터넷 자료>

고승희 (2022. 10. 13.) 「'번역의 신' 황석희 "내 영화 지분이 98.99%라면 뮤지

컬은 50%죠」, 『헤럴드경제』,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1013000538>

김경훈 (n.d.) 「알면 쓸데 있는 신조어 사전: 초월번역」, 『한겨레신문』,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85838.html](https://www.hani.co.kr/arti/specialsection/esc_section/885838.html)

김소연 (2023. 7. 27.) 「소리로 고조되는 새벽 2시 22분의 공포 체험… 연극 ‘2시 22분」, 『한겨레신문』, 2023년 7월 27일 검색.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702030003465>

김지만 (2016. 6. 4.) 「황석희 번역가, “얼라이언스지만 듀로탄에게 반했다”」, 『게임인사이트』,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www.game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22>

김지혜 (2016. 3. 4.) 「‘데드풀’ 구강액션, 어떻게 탄생했나…번역가 황석희의 감각(인터뷰①)」, 『SBS 연예뉴스』, 2023년 7월 27일 검색.

[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546115&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https://ent.sbs.co.kr/news/article.do?article_id=E10007546115&plink=COPYPASTE&cooper=SBSENTERNEWS)

김진영 (2016. 3. 13.) 「이상한 인터뷰 #3 영화번역가 탐구 - 대세번역가 황석희」, 『문화뉴스』,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69>

김두연 (2023. 3. 9.) 「“유퀴즈’ 초월번역” 황석희, 영화 ‘던전 앤 드래곤’ 참여 “이달 개봉”」, 『스포츠한국』,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www.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87>

김영찬 (2019. 7. 16.) 「‘약빠’ 번역 황석희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피터 지리릿 팬찮았나요”」, 『서남데일리』,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eonamtoday.com/m/view.php?idx=4408>

김지혜 (2018. 5. 10.) 「말많은 영화 번역 논란…“못하는 것 vs 안 하는 것”」, 『SBS News』,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51176&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751176&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김호이a (2022. 10. 1.) 「황석희 번역가가 말하는 번역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궁금증들」, 『아주경제』,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2092212622>

김호이b (2022. 10. 1.) 「원작을 뛰어 넘는 스타 번역가 황석희가 말하는 ‘번역 할 맛’이 나는 영화들」, 『아주경제』,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ajunews.com/view/20220912085726615>

배효주 (2020. 2. 28.) 「‘젠틀맨’ 알고 보니 번역가 황석희가 맡았다 “완벽한 초월 번역”」, 『뉴스엔』, 2023년 7월 27일 검색.

[https://newsen.com/news\\_view.php?uid=202002280810366710](https://newsen.com/news_view.php?uid=202002280810366710)

손택균 (2020. 7. 15.) 「황석희, “기발한 위트, 낮설고 우스위... 번역의 맛 느껴죠”」, 『동아일보』,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00715/101971152/1>

신연선 (2022. 12. 9.) 「황석희 “번역가는 충실한 전달자라고 생각해요” 『체셔 크로싱』」, 『채널에스』,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ch.yes24.com/Article/View/52307>

신진호 (2021. 8. 27.) 「“지갑대인데 번역 잘하네”...번역가 황석희, 무례한 질문에 현명한 답변」, 『서울신문』,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27500175>

유부혁 (2018. 5. 23.) 「번역가 황석희 번역은 실패의 예술」, 『Forbes』,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jmagazine.joins.com/forbes/view/321516>

윤기백 (2019. 7. 6.) 「‘인싸 번역가’ 황석희, 영화 ‘우리는 언제나 성에 살았다’ GV 출격」, 『스포츠월드』,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m.sportsworldi.com/view/20190706503921>

이원선 (2021. 10. 12.) 「“오빠=올드맨, 아줌마=그랜마”...번역가 황석희, ‘오겜’ 오역 논란에 번역가 고충 공감」, 『인사이트』,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202104286643H>

이태훈 (2020. 9. 16.) 「영화 데드풀, 스파이더맨 초월적 번역, 이번엔 뮤지컬 데드풀 스파이더맨 등 번역한 황석희, 뮤지컬 ‘썸씽로튼’ 도전」, 『조선일보』,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chosun.com/culture-life/performance-arts/2020/09/16/ZSIJS4QIN5DYZIZNPAKUIWP6FI/>

이해림 (2022. 8. 5.) 「번역가 황석희, 세상을 번역하다」, 『바자(Bazaar)』, 2023



- 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harpersbazaar.co.kr/article/68412>
- 정시우 (2016. 3. 2.) 「‘데드폴’ 황석희 번역가 “가장 무서운 건, 밀리터리 덕 후”(인터뷰②)」, 『텐아시아』,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tenasia.hankyung.com/topic/article/2016030201814>
- 정혜연 (2023. 7. 10.) 「‘씨네타운’ 황석희 “딸, 외출 때마다 인형 쥐어줘..난 하원”」, 『헤럴드 POP』,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2307101100369419900\\_1](http://www.heraldpop.com/view.php?ud=202307101100369419900_1)
- 정희연 (2019. 7. 15.)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황석희 번역가 6문 6답 공개 ft.찌리릿」, 『스포츠동아』, 2023년 7월 24일 검색.  
<https://sports.donga.com/series/0204/3/all/20190715/96475979/1>
- 조아현 (2022. 11. 7.) 「‘민고 보는 번역가’ 황석희, ‘놀이 우리 안에 있다’ 참여 화제」, 『문화일보』,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37900>
- 조유경(2020. 2. 7.) 「‘젠틀맨’ 황석희 번역가와 함께하는 GV 전석 매진」, 『스포츠동아』,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sports.donga.com/ent/article/all/20200207/99589273/2>
- 최상진 (2021. 6. 7.) 「번역가 황석희, 전편 이어 ‘킬러의 보디가드2’ 번역 맡아...더 강력한 재미 예고」, 『서울경제』,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sedaily.com/NewsView/22NJMIYQ29>
- 한혜선 (2022. 11. 9.) 「“hell=진짜 지옥 아냐” 라이언 레이놀즈 ‘복면가왕’ 韓 뒷담화 망언? ‘직역 오해’ 진짜 지옥 아냐야」, 『IZE』,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ize.co.kr/news/articleView.html?idxno=54220>
- 허윤희 (2022. 7. 23.) 「‘데드폴’에서 ‘파친코’까지... 통통 튀는 한국어 말맛, 이 남자가 살렸다」, 『조선일보』, 2023년 7월 18일 검색.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7/23/V3L55KOFWFCR3MCHNHUZHC2QBI/>

[Abstract]

**Paratextual Study of Film Translator Hwang Seok-hee:  
Analyzing Translator's Visibility in the Film Industry**

Soon Mi Kim  
(Sookmyung Women's University)

While film translators are crucial in bridging cultural and linguistic gaps, their contributions often remain underappreciated within the film industry and academia.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role and visibility of translator Hwang Seok-hee, one of the most prominent film translators in Korea, focusing on paratexts surrounding him. The study analyzes 78 online newspaper articles on the translator and his translated subtitles collected through Google search. By categorizing the articles by subject and examining paratextual elements, the study aims to reveal how the translator's visibility and communication with viewers influence the audience's perception of the translator's role and the translated film's overall reception. Furthermore, this research analyzes film industry's institutional practices and norms, uncovering potential factors contributing to the limited visibility of film translators. It also explores the dynamics between translators, distributors, and audiences, seeking to identify possible barriers that impede translators from gaining due recognition for their contribution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nsights into the current state of film translation practices and the portrayal of translators in the film industry.

**Keywords:** paratexts, epitext, sociology of translators, audio-visual translators, translator's visibility

**주제어:** 결텍스트, 바깥텍스트, 번역가의 사회학, 번역가의 가시성, 영상번역가

김순미

숙명여자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부교수

smikim@sookmyung.ac.kr

관심 분야: 번역사회학, 번역가의 지위, 문화콘텐츠 번역, 인공지능 시대의 번역,  
MTPE

논문 투고: 2023년 7월 30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8월 31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9월 8일

게재 확정: 2023년 9월 19일